

[2026] 한주간 쉽게 보는

도내 언론 키워드 동향

Jeju News Keyword Trends

No. 74



Contents

※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대상 기간 : 2026.01.08~2026.01.14

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정치·행정	1
▪ 경제·관광	2
▪ 지역·사회	2

2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3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6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10

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제주지역 ①정치·행정, ②경제·관광, ③지역·사회 등 3개 분야에 대한
도내언론 키워드 분석 결과

분야	주요 키워드
정치·행정	투자, 성장, 대응, 오영훈, 생산
경제·관광	생산, 감귤(수입/만다린/농업/농가), 기술, 성장, 지원사업
지역·사회	발견(해안/마약), 도로(차량), 자료, 마을, 지역사회

※ 분석 기간 : 26.01.08.~26.01.14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정치·행정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다오 향로 손실보전금 투자심사 논란 - 중소기업 위기극복 특별신용보증 시행 - 전국체전 경기장 시설 인프라 대거 확충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생태계 조성 - 반(反) 오영훈 '제주혁신포럼' 출범 - 정부 전략 연계 제주형 경제성장 추진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산 만다린 무관세 수입 대응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긴급 방역 -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선제적 대응
	오영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권 내 '반(反) 오영훈 전선' 구축 - 만감류 농가 현장 소통 행보 -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 논평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푸드테크 클러스터 생산 유발 효과 - 고품질 감귤 안정적 생산 지원 - 전국체전 개최의 경제적 파급효과

○ (경제·관광 분야) 주요 보도 내용

경제·관광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동채소 생산량 급증과 가격 폭락 - 고품질 감귤 생산 위한 간벌 지원 - 스마트 양식 기술 통한 생산 제어
	감귤(수입/만다린/농업/농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산 만다린 무관세 수입 위기 - 농가 및 유관기관 공동 대응 대책 - 폐자원 활용 감귤 산업의 가치 확장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데이터 플랫폼 '제주DA' 고도화 - 푸드테크 혁신 클러스터 구축 - 바이오 소재 활용 화장품 기술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관광산업의 회복과 성장세 - 미래 신산업 육성 통한 경제 도약 - 로컬 크리에이터 및 스타트업 육성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및 건설업 금융 지원 - 노동자 주거 안정 및 복지 지원 - 해녀 및 수산업 경쟁력 강화

○ (지역·사회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지역·사회	발견(해안/마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만발 마약류 제주 해안 유입 - 구좌읍 해안 무동력 목선 발견 - 실종 치매 어르신 극적 구조
	도로(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설·강풍 인한 연쇄 추돌 사고 - 평화로 쓰레기 수거차 전복 - 음주운전 면허취소 급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미세먼지 농도 전국 최저 - 초등학생 수 급감 전망 - 지역안전지수 하위권 기록
	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호동 해안사구 훼손 반발 - 한림읍 양돈장 화재 피해 - 용천수 보전 인증마을 선정
	지역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대병원 상급종합병원 도전 - 쿠팡 정보 유출 집단소송 - 사랑의 온도탑 나눔 열기

2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2026년 1월 8일~1월 14일 기간, 정치·행정, 경제·관광, 지역·사회 등에 관한 제주지역 7개 주요 언론사 보도자료는 약 745건임
 - 정치·행정 분야 312건, 경제·관광 140건, 지역·사회 293건임
 - * 대상 언론사: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투자, 성장, 대응, 오염훈, 생산 등으로 나타남



[그림 1] 정치·행정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정치·행정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칭다오 항로 손실보전금 투자심사 논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과 중국 선사 간 체결한 화물선 손실보전금 협정이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결과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임이 확인되어 위법성 논란이 제기됨. · 도는 조례에 근거해 의회 동의를 거쳤으므로 심사 제외 대상이라 반박하고 있으나, 행안부와 변호사 자문 결과가 엇갈려 법제처에 최종 유권해석을 의뢰해 판단을 구할 예정임. - 중소기업 위극복 특별신용보증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경기 침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체의 경영 안정
-------	----	--

정치·행정	투자	<p>을 위해 제주도가 20억 원을 특별 출연하여 총 240억 원 규모의 보증 재원을 조성하고 지원에 나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대상 업체당 최대 1억 원 한도로 보증을 지원하며, 일반 금융권 대출 대비 약 4~6% 수준의 금리 절감 효과를 제공해 지역 건설산업의 유동성 위기 해소를 뒷받침함. <p>- 전국체전 경기장 시설 인프라 대거 확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년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경기장 시설 개·보수와 운영비 등에 총 1072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함. · 서귀포종합체육관 건립과 강창학주경기장 정비 등 도내 주요 체육 시설을 공인 기준에 맞춰 정비함으로써, 대회 이후에도 전지훈련 유치 등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계획임.
	성장	<p>-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생태계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는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하기 위해 29억 원을 투입, 유망 기업 발굴과 전용 펀드 조성 등 3단계 전략을 통해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함. · 스타크리에이터 발굴 사업에 8억 원을 투자하고 50억 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조성해 기업의 성장을 돕는 한편, 글로벌 진출과 지역 상생 모델을 확산시켜 질적 성장을 도모함. <p>- 반(反) 오염훈 '제주혁신포럼' 출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대림, 송재호 전·현직 국회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제주혁신포럼'이 출범하여, 위기에 처한 제주 경제의 회복과 지역 균형 성장을 위한 정책 대안 발굴에 나섬. · 포럼은 현 도정의 실정을 비판하며 도민 주권에 기반한 새로운 지방정부 모델을 모색하고, 민생 경제 회복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견인할 지역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함. <p>- 정부 전략 연계 제주형 경제성장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는 정부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발맞춰 인공지능(AI) 대전환, 녹색 대전환, 그린수소 등 제주형 핵심 사업의 국비 확보와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며 도민 체감형 정책을 확산함. · 각 실국은 정부 전략과 연계해 하반기 추경 및 내년도 예산 편성에 적극 대응하고, 해녀 문화의 세계화 등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한 글로벌 성장 사업도 확대해 나갈 방침을 세움.
	대응	<p>- 미국산 만다린 무관세 수입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 FTA에 따른 미국산 만다린 무관세 수입으로 시장 위축이 우려됨에 따라, 제주도는 고품질 감귤 생산과 출하시기 조절, 마케팅 강화 등을 통해 경쟁력 확보와 가격 방어에 나섬. · 오염훈 지사는 레드향 농가를 방문해 품질 차별화와 유통 질서 확립을 강조하며, 농가와 행정이 협력해 고품질 생산 체계로 전환한다면 충분히 수입산

정치·행정	대응	<p>과일 공세에 대응할 수 있다고 밝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긴급 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서귀포시 해안 야생조류에서 이번 겨울 첫 고병원성 A가 검출됨에 따라, 방역당국은 반경 10km를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를 즉각 시행함. · 철새도래지 출입 통제와 소독을 강화하는 한편, 농가에 대한 긴급 전화 예찰과 정밀 검사를 실시해 바이러스의 농장 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함. -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선제적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귀포시는 기후변화로 인해 빈번해지는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배수개선 사업, 하천 정비 등에 총 538억 원을 투입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나섬. · 설계 단계부터 지역 주민과 자율방재단의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재해 예방 사업을 추진하며, 상습 침수 지역 등 예측 불가능한 위험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는 데 집중함.
	오영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권 내 '반(反) 오영훈 전선'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당 내 문대림, 송재호 의원이 주축이 된 제주혁신포럼이 출범하며 오영훈 도정의 무능과 불통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도정 교체를 목표로 한 경쟁 구도를 형성함. · 포럼 참여 인사들은 오 지사의 행보를 '정치적 쇼잉'이라고 지적하며, 도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정책 추진과 예산 낭비 사례를 들어 새로운 리더십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견제 수위를 높임. - 만감류 농가 현장 소통 행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영훈 지사는 미국산 만다린 무관세 조치로 우려하는 제주시 레드향 재배 농가를 직접 찾아 수확 현장을 살피고, 농가 및 농협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함. · 오 지사는 고품질 생산 시설 지원과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약속하며, "공포 마케팅에 흔들리지 말고 최고의 품질로 승부하자"며 농가와 행정이 힘을 모아 시장 개방 파고를 넘어서자는 의지를 피력함. -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 논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영훈 지사는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사형을 구형하자, SNS를 통해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당연하고도 필연적인 수순"이라며 환영의 뜻을 공식적으로 밝힘. ·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난 1년 내란의 충격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들의 연대와 역사적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함.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푸드테크 클러스터 생산 유발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는 2030년까지 871억 원을 투입해 첨단과학기술단지에 푸드테크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며, 이를 통해 2282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842억

정치·행정	생산	<p>원의 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와 스마트가공센터 등을 구축해 청정 농산물의 생산부터 가공, 유통까지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함으로써,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임. <p>- 고품질 감귤 안정적 생산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FTA기금 사업 등을 통해 비가림하우스, 원지 정비 등 생산 시설 현대화를 지원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고품질 감귤 생산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사업을 추진함. · 만감류 출하 조절 장려금 지원과 비파괴 광센서 선별 검사를 강화해 완숙과 생산을 유도하고, 수입산 과일과의 품질 차별화를 통해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며 시장 경쟁력을 높임. <p>- 전국체전 개최의 경제적 파급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연구원은 2026년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 개최가 제주 지역에 2569억 원의 누적 생산유발 효과와 1145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함. · 대회 시설 투자와 선수단 및 관광객의 소비 지출이 맞물려 건설 경기와 관광 산업 등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용 유발 등 긍정적인 경제 지표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됨.
-------	----	--

○ 경제·관광 보도자료의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생산, 감귤(수입/만다린/농업/농가), 기술, 성장, 지원사업 등으로 나타남



[그림 2] 경제·관광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경제·관광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동채소 생산량 급증과 가격 폭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동채소 생산량 급증에 따른 수급 불안 심화제주지역 겨울무, 당근, 양배추 등 주요 월동채소의 생산량이 전년 대비 30%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가격 하락세가 뚜렷하며, 이는 지난여름 기상이변 이후 농가들이 특정 작목으로 쏠림 현상을 보인 것과 양호한 기상 여건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됨. · 가격 지지를 위한 자율 감축 및 수급 대책 추진양배추 등 주요 품목의 도매 가격이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폭락함에 따라 제주도는 분산 출하 유도, 자율 감축, 가공용 구매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가격 지지에 나서고 있으며, 농협과 협력하여 선제적인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함. - 고품질 감귤 생산 위한 간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지감귤원 1/2 간벌 사업 본격 추진제주도는 고품질 감귤 생산과 농작업 편의성 제고를 위해 2026년 노지감귤원 간벌 지원사업을 4월까지 추진하며, 올해 목표량은 80ha로 설정하여 농가 참여를 독려하고 지역 농·감협 및 읍면동을 통해 신청을 접수받아 작업단을 통해 대행 작업을 지원함. · 지원 단가 인상 및 만감류 포함 지원 확대간벌 작업비 지원 단가를 전년 대비 20만원 인상된 ha당 250만원으로 책정하여 농가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지원 대상을 노지감귤뿐만 아니라 만감류까지 포함하여 밀식 재배 해소를 통한 일조량 확보와 당도 향상 등 품질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 - 스마트 양식 기술 통한 생산 제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물학적 주기 제어로 고등어 연중 생산JDC 제주혁신성장센터 입주기업인 메가플랜이 수온과 광인자 등 환경 조건 조절을 통해 고등어의 산란 주기를 정밀 제어하는 스마트 양식 기술로 해양수산신기술(NET) 인증을 획득했으며, 이를 통해 특정 시즌에만 가능하던 생산을 연중 다회 산란 및 생산 체계로 전환함. · 데이터 기반 맞춤형 계획 생산 체계 확립상용화 가능한 안정적 수율을 확보하고 데이터 기반의 계획 생산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영양, 식감, 위생 등 시장 요구에 맞춘 맞춤형 생산을 실현했으며, 일본 수산업계에서도 방사능 등 리스크 관리를 위한 안전 생산 기지로 해당 기술 도입을 검토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음.
	감귤(수입/만다린/농업/농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산 만다린 무관세 수입 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 철폐로 인한 수입 급증과 가격 경쟁올해부터 미국산 만다린에 대한 관세가 완전히 철폐(0%)되면서 수입 물량이 전년 대비 약 27배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입 시기가 제주산 만감류(한라봉, 천혜향 등) 출하 시기와 겹쳐 가격 경쟁력 약화 및 농가 소득 감소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됨. · 저가 공세 및 품질 유사성 따른 시장 위협수입되는 만다린 품종(탱고 등)은 씨가 없고 당도가 높아 국내 소비자 입맛에 맞으며, 껍질이 얇고 외형이 제주 만감류와 유사한 데다 대형 유통매장에서 제주산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 제주 감귤 산업의 최대 경쟁자로 부상하며 시장 점유율을 위협함.

	<p>감귤(수입/만다린/농업/농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 및 유관기관 공동 대응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 고급화 및 출하 시기 조절 총력제주도와 농협, 감귤연합회는 긴급 간담회를 열어 고당도·고품질 생산만이 살길임에 공감하고, 철저한 품질 기준 준수와 비상품 감귤 유통 차단, 출하 시기 분산 등을 통해 수입산과의 차별화를 꾀하며 초기 시장 가격 방어에 집중하기로 결의함. · 검역 강화 및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촉구병해충 유입과 저품질 수입 물량으로 인한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검역 및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한편, 수입보장보험 제도 보완, 만감류 군납 확대, 정부 할인 지원 사업 품목 포함 등 제도적 지원책 마련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함. - 폐자원 활용 감귤 산업의 가치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컨테이너 업사이클링 통한 자원 순환매년 버려지거나 방치되어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되던 감귤 수확용 페플라스틱 컨테이너를 수거 및 파쇄하여 새로운 자원으로 재탄생시키는 '플라스틱 자원순환 프로젝트'가 추진되며, 이를 통해 지역 농업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고 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함. · 돌하르방 디자인 굿즈 개발 및 수익 환원폐컨테이너를 활용해 '돌하르방 감귤 컨테이너' 굿즈를 개발하여 관광 기념품 및 판촉물로 상품화했으며, 발생한 수익금 일부는 지역 초·중등학교 환경 교육 및 진로 체험 교육에 환원하는 등 농업과 관광, 환경을 연계한 사회적 가치 창출 모델을 구축함.
<p>경제·관광</p>	<p>기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데이터 플랫폼 '제주DA'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기반 농작물 생산 및 가격 예측 시스템제주농업기술원은 농업 빅데이터 플랫폼 '제주DA'를 고도화하여 드론과 AI 기술을 활용한 주요 월동작물 5개 품목(감귤, 당근 등)의 생산량과 가격 예측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정밀 농업을 실현하고 수급 안정에 기여함. · 데이터 확충 및 맞춤형 영농 서비스 제공기존 34종의 데이터를 40종으로 확대하고 도내 경작지 전수조사 데이터를 연계하여 필지별 정밀 정보를 구축하며, AI 분석을 기반으로 영농일지, 병해충 예보, 비료·농약 이력 관리 등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함. - 푸드테크 혁신 클러스터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산업 전주기 기술 지원 생태계 조성제주도는 2030년까지 총 870억 원을 투입해 첨단과학기술단지 내에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농산물 스마트가공센터를 건립하여 원료 생산부터 가공, 제품 개발, 유통까지 이어지는 식품산업 전주기 기술 지원 생태계를 조성함. · AI·푸드테크 융합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통해 AI와 디지털 전환(DX) 기술 기반의 맞춤형 간편식 개발을 지원하고, 급속냉동(IQF) 등 스마트 가공 기술을 도입해 월동채소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한편, 그린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기능성 소재 개발 및 스타트업 육성을 추진함. - 바이오 소재 활용 화장품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 융복합 기술 기반 제품화 및 수출 성과제주테크노파크의 지원을 받은 도내 화장품 기업들이 첨단 바이오 소재 활용 기술과 맞춤형 제조 공정 기술을 바탕으로 고기능성 화장품을 개발하여 유럽, 아시아 등 11개국에 수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28억 원의 매출과 특허 등록 등 기술적 경쟁력을 입증함.

경제·관광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부터 양산까지 전주기 기술 지원산업통상자원부 지원 사업을 통해 소재 개발, 효능 검사, 품질 관리 시스템 구축, 시제품 제작, 초도 양산 등 기술 개발부터 제품화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영세한 지역 기업들이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기반을 마련함.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관광산업의 회복과 성장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외국인 관광객 동반 증가로 회복세 뚜렷올해 1월 초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3% 증가했으며, 특히 내국인은 항공 공급석 확대 등으로 20% 이상, 외국인은 국제선 증편 및 중·일 갈등 반사이익 등으로 35% 이상 급증하며 관광 시장이 완전한 회복 및 성장 국면에 진입함. · 글로벌 노선 확대 및 소비 심리 개선 기대제주 기점 항공 노선의 공급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중국, 대만 등 국제선 운항이 확대되면서 접근성이 개선되었으며, 관광객 증가가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 등 지역 내 소비 활성화로 이어져 관련 업계의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됨. - 미래 신산업 육성 통한 경제 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주·에너지 등 신성장 동력 산업 본격화제주상공회의소 등 경제계는 2026년을 제주 경제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민간 우주산업(한화우주센터), 분산에너지 특구, 그린수소 등 미래 첨단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기존 관광·건설 중심의 산업 구조를 다변화하고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함. · 글로벌 수출 및 디지털 전환 통한 경쟁력 강화싱가포르 등 해외 시장으로의 축산물 수출 확대, 제주-칭다오 정기 화물선 운항 등 물류 체계 개선과 함께 지역 화폐 및 결제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여 제주 기업들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주력함. - 로컬 크리에이터 및 스타트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컬 크리에이터 생태계 조성 및 펀드 운용제주도는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를 육성하기 위해 29억 원 규모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50억 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조성하여 유망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지역 내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청년 인재 유입과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함. · 유망 기술 기업 발굴 및 스케일업 지원JDC는 Route330 프로그램을 통해 AI, 미래 모빌리티 등 신기술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사무 공간 제공, 투자 연계, R&D 실증 지원 등 맞춤형 성장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차세대 유니콘 기업으로의 도약을 돕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음.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및 건설업 금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건설업체 위기 극복 특별보증 시행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 건설업체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제주도가 20억 원을 출연하여 총 240억 원 규모의 특별신용보증을 지원하며, 업체당 최대 1억 원 보증 및 이차보전을 통해 시중 금리 대비 4~6% 낮은 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소상공인 경영 안정 위한 금융 안전망 강화제주신용보증재단은 지자체 및 은행과 협력하여 고금리·고물가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위해 특별 보증 상품을 운영하고, 보증 수수료 인하 및 저금리 자금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폐업 위기를 막는 금융 안전망 역할을 수행함. - 노동자 주거 안정 및 복지 지원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지역·사회	발견(해안/마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만발 마약류 제주 해안 유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해안가에서 잇따라 발견된 마약류 '케타민'이 지난해 7월 대만 해상에서 유실된 마약과 포장 형태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류를 타고 제주까지 자연 표류했을 가능성에 수사력이 집중됨. · 해경은 범죄 조직의 직접적인 도내 유통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으나, 대만 수사 당국과 공조하여 정밀 분석을 이어가는 한편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해 해안가 순찰과 수거 활동을 대폭 강화함. - 구좌읍 해안 무동력 목선 발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해안가에서 중국어 '서(徐)'자가 적힌 정체불명의 목선이 발견되어 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섰으나, 대공 혐의점이나 범죄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되어 폐기 절차가 진행됨. · 해당 선박은 엔진이 없는 무동력선으로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발견된 선박과 유사한 형태를 보였으며, 해경은 밀입국 시도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해상에서 표류하다 제주 해안으로 떠밀려온 것으로 결론 내림. - 실종 치매 어르신 극적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귀포시 과수원 배수로에 추락해 실종된 치매 어르신과 제주시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어르신이 경찰의 끈질긴 수색과 세심한 관찰 덕분에 무사히 발견되어 가족의 품으로 안전하게 인계됨. · 퇴근길 경찰관이 인상착의를 기억해 실종자를 발견하거나, 풀숲에 가려진 배수로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작은 신음소리를 놓치지 않고 포착해 구조하는 등 현장 경찰관들의 투철한 직업정신이 빛을 발함.
	도로(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설·강풍 인한 연쇄 추돌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전역에 몰아친 강력한 한파와 폭설로 도로 곳곳이 결빙되면서 서귀포시 안덕면 등 산간 도로에서 차량 4대가 연쇄 추돌하는 등 눈길 미끄러짐 사고가 속출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1100도로와 516도로 등 주요 산간 도로는 차량 운행이 전면 통제되거나 월동장비를 갖춘 차량만 허용되었으며, 소방당국은 사고 현장과 강풍 피해 지역에 인력을 급파해 신속한 안전 조치를 완료함. - 평화로 쓰레기 수거차 전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시 평화로 운전면허시험장 인근 도로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탑승자가 부상을 입고 도로가 통제되는 등 일대 교통이 극심한 정체를 빚음. · 사고 수습을 위해 대형 크레인이 투입되고 차량 우회 조치가 이뤄졌으며, 소방당국은 전복된 차량에서 유출된 기름에 대한 흡착포 방제 작업을 실시해 화재 등 2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주력함. - 음주운전 면허취소 급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해 제주지역 운전면허 취소자 3명 중 1명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했으며, 경찰은 연말연시를 맞아 주야간을 가리

지역·사회		<p>지 않는 불시 특별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총력을 기울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은 인센티브 확대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령 운전자 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 단순 반납 유도를 넘어선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함.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미세먼지 농도 전국 최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가 지난 10년간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은 청정 지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환경공단의 분석 데이터가 발표되어 제주의 깨끗한 대기 환경 경쟁력이 입증됨. ·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친환경차 보급 확대, 대규모 도시 숲 조성 등 제주도의 지속적인 대기질 개선 정책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긍정적인 수치로 나타남. - 초등학생 수 급감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 기조의 심화로 향후 7년간 제주도내 초등학생 수가 1만 명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교육청의 인구 추계 자료가 발표되었으며, 특히 읍면 지역 작은 학교의 존립 위기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됨. ·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복식 학급 운영 확대나 학교 통폐합 논의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며, 교육청은 적정 규모 학교 육성과 공동 학구 운영 등 교육 여건 악화를 막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함. - 지역안전지수 하위권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역안전지수 통계에서 제주도는 범죄, 생활안전, 자살 분야에서 전국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기록해 주민 안전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과 실효성 있는 치안 대책 강화가 시급함. · 교통사고와 화재, 감염병 분야에서는 비교적 양호한 등급을 받았으나 취약 분야에 대한 개선 노력이 절실하며, 제주도는 이번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분야별 맞춤형 안전 개선 대책을 수립할 예정임.
	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호동 해안사구 훼손 반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시 이호동 서마을 주민들이 긴급 총회를 열고 무분별한 개발 공사로 훼손된 해안사구의 원상복구와 건축 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행정의 안일한 현장 조사와 인허가 과정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섬. · 주민들은 해안사구가 태풍과 해풍으로부터 마을을 보호하는 자연 방파제 역할을 해왔음을 강조하며, 공사 강행 시 물리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해 개발업체 및 제주시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한림읍 양돈장 화재 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의 한 양돈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돈사 시설 일부가 불에 타고 사육 중이던 새끼 돼지 200여 마리가 폐사하는 등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 없이 소방당국에 의해 진화됨. · 화재 신고 접수 직후 소방대원들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 불길을 잡았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는 한편 겨울철 축사 시설의 화재 예방 관리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함. - 용천수 보전 인증마을 선정

지역·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는 마을 공동체가 주도적으로 마을의 유산인 용천수를 관리하고 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용천수 인증마을'을 선정하고, 향후 3년간 단계별로 예산을 지원해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함. · 선정된 마을은 용천수 주변 환경 정비부터 시작해 관광 자원화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활용 역량을 강화하게 되며, 이는 수자원 보호뿐만 아니라 마을 생태 관광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지역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대병원 상급종합병원 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대학교병원이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진료 체계 전면 개편과 중증 질환 전문성 강화를 선언하며, 도내 의료 자치 실현을 위한 정부의 상급 종합병원 지정 공모에 본격적으로 도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 병원 측은 암 센터 개소, 이식 센터 활성화 등 구체적인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도민들의 잦은 육지 원정 진료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내에서 완결되는 필수 의료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함. - 쿠팡 정보 유출 집단소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제주도민 1,500여 명이 법률사무소를 통해 1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기업의 부실한 정보 관리 책임을 묻는 대규모 소비자 집단 행동에 나섬. · 이번 소송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 요구를 넘어 도서 지역의 필수 생활 플랫폼이 된 거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추가 원고 모집을 통해 소송 참여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 사랑의 온도탑 나눔 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려운 경기 침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주 지역사회의 기부 행렬이 이어지면서 '사랑의 온도탑' 나눔 온도가 80도를 훌쩍 넘어서는 등 목표 달성에 청신호가 켜져 도민들의 따뜻한 이웃 사랑 정신이 재확인됨. · 기업과 단체의 고액 기부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소액 기부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금회는 다가오는 설 연휴를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지원 사업에 박차를 가하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주력함.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전략실)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